



소프트파워 경쟁과 한국매력외교 과제 17개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비교

2010년 4월 26일

이내영 · 정한울

1. 2010 세계현안조사(2010 Global Poll): 17개 파워국가의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G-2, 소프트파워에선 EU와 일본에 밀려: 미국 7위, 중국 8위
존재감 미흡한 한국, G20 13개국 중 12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의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질서를 좌우할 G2로 불리고 있지만 문화적 매력(cultural attractiveness), 국제적인 평판(global reputation) 등으로 평가되는 소프트파워에서는 유럽 국가들에 밀리고 있다. 세계 17개 주요파워국가를 선정하여 각 나라에 대한 국제적 평판과 이미지가 어떠한지 28개국 29,97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일본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이는 영국 BBC방송이 세계 주요 연구기관 및 언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시한 ‘2010 세계현안 조사(2010 Global Poll)’ 결과를 토대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주요 파워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평판을 분석한 결과다. 28개국 중 23개국은 2009년 동일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림1] 2010 Global Poll 28개국 조사 참여국가



2010년 조사는 북미지역 2개국(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4개국(멕시코, 브라질, 중미5개국, 칠레), 유럽 6개국(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과 러시아, 아프리카 3개국(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중동 2개국(이집트, 터키), 아시아 10개국(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호주) 등 전 세계인구의 55% 이상을 포괄하는 28개 국가들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참여 국가들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을 아우르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년 조사에 참여하여 세계 여론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이번 2010년에 참여한 28개국 중 23개국은 2009년 동일 조사를 실시한 나라들이며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태국, 파키스탄, 한국이 2010년 조사에 새로 포함되었다. 한국은 2005년부터 매년 본 조사에 참여해왔지만 2009년 조사에는 내부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표1] 2010 조사 참여 28개국 및 2009 조사 참여 23개국

대륙	2010 조사참여 국가 28개국 (2009 23개국 - 밑줄 친 국가는 2009조사 불참)
북미	미국, 캐나다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중미지역 5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나마), 칠레
유라시아	독일,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중동	이집트, 터키
아시아/태평양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호주

Global Poll 조사 시리즈, 2005년부터 매년 주요 파워국가 평판조사

2010년 조사부터 한국도 평판 평가대상 국가로 선정

Global Poll 국제조사 시리즈는 2005년부터 세계 질서에 영향력이 큰 10여개 파워국가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세계인의 평판을 물어보고 있다. 2010년 조사에는 17개 파워국가들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 경제위기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G20 국가 중 브릭스(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4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 11월 19일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며 정치적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유럽연합(EU)과 함께 한국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핵개발과 국제분쟁 등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4개 위험국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을 제외한 16개 나라는 2009년 이전 조사에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 나라들이다. 한국은 EAI(동아시아연구원)와 매일경제의 요청으로 2010년 조사에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앞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Global Poll 국제조사 시리즈는 ISO 9001 인준을 받은 국제여론조사컨설팅기관인 글로브스캔(Globscan)이 전체조사를 주관하고, 매일경제와 EAI가 한국을 대표하여 2005년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2월 16일까지 국제표준절차에 따라 대면면접법 또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각국에서 인구비례에 맞게 할당된 1000명 이상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모집된 표본을 역시 인구비례에 맞게 할당된 두 개 집단으로 분할하여 각 50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가별 평가를 진행했다. 한국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1월 11일~12일 양일간 전화로 조사한 결과다(부록. 조사방법론 참조).



2. 세계인의 눈에 비친 17개 파워국가의 소프트파워

1) 왜 소프트파워인가?

9.11 이후 미국 고립 이후, 세계 파워국가 소프트파워 경쟁에 나서

세계 슈퍼파워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중동 이슬람은 물론 전통적인 동맹국 정부 및 국민들 사이에 확산된 반미정서의 고조,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에 기반 일방주의 노선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국제적으로 고립된 바 있다. 이는 이슬람과의 공존, 동맹국과의 공동노력과 다자협력을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의 등장을 가져온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Armitage and Nye 2007).

이러한 경험은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파워 등 물질적 자원 및 강제적인 수단을 중시하는 하드 파워와 함께 다른 나라의 정부는 물론 민간영역, 특히 일반 국민들의 정서적 호감, 가치관과 문화적 매력, 국제적 평판 등 비 물질적 자원을 통해 설득과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김상배 2005). 이제 미국 자신은 물론 G2의 한축으로 부상하며 아시아 및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통적으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있던 강대국 사이엔 하드파워 경쟁과 함께 소프트파워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하영선 2006; Nye 2004; Whitney and Shambaugh 2009).

한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최근 국제사회 및 아시아 지역에서 수동적인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제고와 소프트파워의 강화를 주요 외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상외교나 정부 간 공식외교 뿐 아니라 주변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Lee 2009).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의 전환,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세계평판은 소프트파워 측정의 핵심 지표

Global Poll 국제조사는 미국, 중국 등 G2는 물론 G20에 속한 주요 파워국가,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는 위협국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평판(reputation)을 매년 여론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민간부문 특히 다른 나라의 일반국민들이 특정 국가에 갖고 있는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에는 그 나라에 대한 정서적 호감, 문화적 흡입력, 이미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국제적 평판(global reputation)은 한 나라의 소프트파워를 보여 핵심 지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파워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에 대한 분석결과는 세계 파워국가들간의 소프트파워 경쟁이 어디까지 왔는가 보여주는 전략 지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국이 추구하는 소프트파워 외교 전략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거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2010 Global Poll, 17개 파워 국가 국제평판 조사결과

[표2]는 2010년 17개 파워국가 각각에 대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가?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27개국 국민들의 응답 평균을 보여준다. 조사를 진행한 국가 중 해당 국가가 17개 평가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그 나라 조사결과는 평균계산에서 제외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전체 28개국 응답평균이 아닌 자기나라의 여론이 빠진 27개국 응답평균이 된다. 다만 한국의 경우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과 태국을 뺀 26개국 조사결과이다.

[표2] 세계 파워 17개국 국제 평판 : 27개국 응답평균(%)

순위	국가	분류	2010년 (27개국 평균)			2009년 (23개국 평균)		
			긍정적	부정적	모름/유보	긍정적	부정적	모름/유보
1	독일*	G7	59	14	27	61	15	24
2	일본*	G7	53	21	26	56	22	22
3	EU	G20	53	18	29	58	18	24
4	영국*	G7	52	20	28	57	19	24
5	캐나다*	G7	51	14	35	58	14	28
6	프랑스*	G7	49	19	32	53	21	26
7	미국*	G7	46	34	20	40	43	17
8	중국*	G20 브릭스	41	38	21	40	40	20
9	브라질*	G20 브릭스	41	23	36	45	23	32
10	인도*	G20 브릭스	36	31	33	38	34	28
11	남아공	G20	34	27	39	36	31	33
12	한국*	G20	32	29	39	-	-	-
13	러시아*	G20 브릭스	30	37	33	31	42	27
14	이스라엘	위험국가	19	50	31	22	52	26
15	북한	위험국가	17	48	35	20	49	31
16	파키스탄*	위험국가	16	51	33	18	54	28
17	이란	위험국가	15	56	29	18	56	26

* 17개 조사대상 국가 중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여론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평균 계산에서 제외함.



G7 국제적 역할 ‘긍정적’, 독일 59% > 일본/EU 53% > 영국 52% > 캐나다 順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독일이 세계 각국 국민들로부터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 꼽혔다. 28개국의 응답을 평균한 결과 59%가 독일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나머지 27%는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 독일 다음으로 일본과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는데 이들 나라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비율이 각각 53%로 같았다. 그 뒤를 이어 영국(52%), 캐나다(51%), 프랑스(49%)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G20가 부상하기 전까지 국제 분쟁이나 국제경제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온 선진 7개국들이 세계인들로부터 국제적 리더십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G2 소프트파워는 하드 파워 못 미쳐: 긍정평가 미국 46%(7위), 중국 41%(8위)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는 유럽 주요 선진국과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46%, 중국은 41%로 13개 G20 국가 중 각각 7, 8위에 해당하는 성적표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각각 34%, 38%였고 모르겠다고거나 답변을 유보한 응답도 각각 20%, 21%에 달했다. 이들의 대한 미온적인 시선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들 국가의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와 세계 시장에서의 강한 흡입력 등 강한 물리적 하드파워가 일방적인 패권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20 국가 13개국 중 12위, 우물 안 개구리 경제해야 긍정평가 32%, 부정 평가 29%, 모름/무응답 39%

한편 소프트파워 외교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에 힘 쏟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국제평판은 그다지 큰 존재감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는 32%에 그쳤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29%나 된다. 긍정적 평가 기준으로 보면 중국 41%, 인도 36%에 미치지 못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3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 G20 13개 국가 중에서 러시아(30%) 다음으로 국제평판이 낮은 나라로 분류된다. 최근 대통령의 정상외교 및 정부의 공공외교가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금방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아미티지와 나이의 지적처럼 공공외교, 소프트파워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장기적 비전과 전략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국제적 평판이 G20 국가 중에서도 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후 보다 전략적 이면서 정력적인 대외 공공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다.

위협국가 ‘부정적’이미지, 이란 56% > 파키스탄 51% > 이스라엘 50% > 북한 48%順

28개국 응답자들로부터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들로는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나라는 현재 국제적으로 핵개발 의혹이 있거나 주요 분쟁의 당사자로서 이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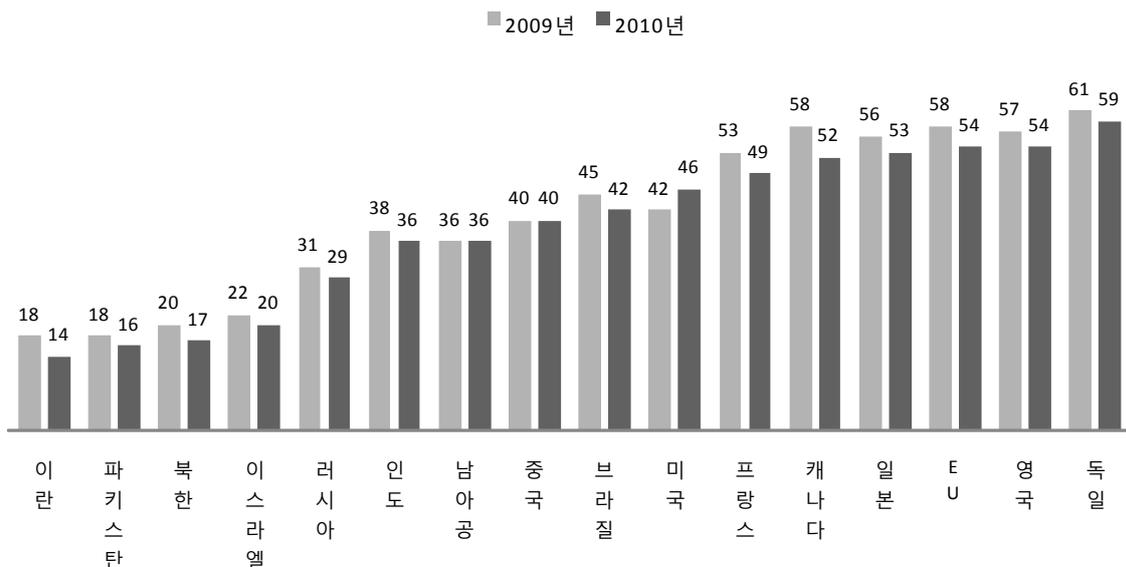
경우 긍정적 평가는 15%, 부정적인 평가는 56%로 나타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큰 나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6%, 부정적인 평가는 51%였고, 이스라엘은 긍정적 평가 19%, 부정적인 평가 50%였다.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낸 북한도 긍정적인 평가는 17%에 그친 반면, 부정적인 평가가 48%로 나타나 '나쁜 국가'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2009년 비교 : 미국만 오바마 효과 힘입어 이미지 개선, 대부분 나라는 정체

앞의 [표2]에서 2009년 23개국 조사결과와 2010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급격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인 평판이 약화되거나 정체된 추세인 반면 미국에 대한 인식은 유독 나아지는 추세다.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독일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2009년 61%에서 2010년 59%로 머물렀고 올해 2위에 오른 일본의 경우도 2009년 56%에서 53%로 하강세다. 영국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57%에서 54%로 5%p가량 떨어졌으며 프랑스 역시 2009년 53%에서 2010년 49%로 내려왔다. 이러한 하강 또는 정체현상은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신흥 경제 강국들인 브릭스 국가, 이란,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위협 국가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010년에 2009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개 국가의 조사결과가 합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 해사이에 발생한 변화량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2009년 조사와 2010년 조사 모두 참여한 23개국 결과를 따로 확인해봤다(그림2). 위의 [표1]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미국의 상승세와 다른 국가들의 정체현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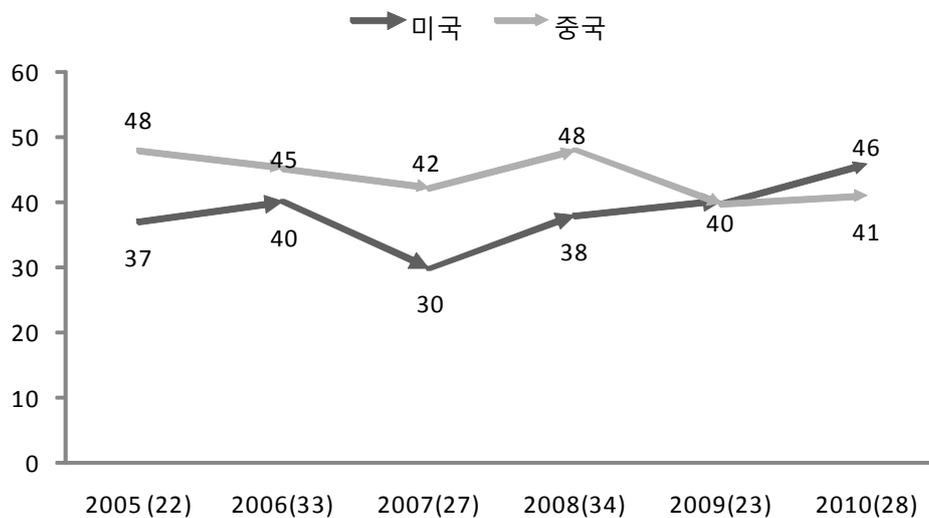
[그림2] 17개국 국제평판 긍정평가 비율: 2009-2010년 모두 참여한 23개국 응답평균



G-2 국제평판 시계열 비교: 2005년 이래 6년 만에 미중 평판 첫 역전

G-2, 즉 미국과 중국의 경우만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국제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의 국제평판은 여전히 정체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취임 직전에 실시된 2009년 23개국 조사에서는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 부정적인 평가가 45%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 답변유보 응답이 15%였다. 중국은 같은 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40%, 부정적인 평가가 40%, 답변유보 응답이 20%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매년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림2] G-2의 국제적 역할 긍정적 평가비율 변화 (Global Poll 2005~2010)



*주: 괄호안은 조사국가 수

2005년부터 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후 2005년부터 2008년 부시행정부 시기 동안 30~40%대에 머물러 있었다. 2005년 22개국 조사에서 35%, 2006년 33개국 조사에서 40%, 2007년 27개국 조사에서는 30%까지 떨어졌지만 부시행정부가 집권 하반기부터 일방주의적 정책을 완화하면서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 2008년 34개국 조사에서 38%, 2009년 오바마 정부 취임 직전 조사에서 40%를 회복하다 이번 조사에서 46%까지 올랐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05년 조사에서 48%, 2006년 조사에서 45%, 2007년 조사에서 42%, 2008년에는 다시 48%로 40% 중 후반대의 우호적인 평판을 유지했다. 그러나 작년 2009년 조사에서 40%, 올 조사에서도 41%에 그쳐 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3. G2 국제평판 국가별 분석: 오바마 등장 이후 앞서가는 미국

미국,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 및 비이슬람 국가에서 이미지 개선

더그 밀러(Doug Miller) 글로브스캔 대표의 분석처럼 “현재 세계인은 제2차 이라크 전쟁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강하다. 물론 여전히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미국의 국제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 이미지가 개선된 것은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전통적인 유럽의 동맹국들과 아시아의 선진국, 비회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유럽의 동맹 국가들이나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에서조차 미국에 대한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국제평판이 악화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전임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한 오바마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동맹국들의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에서 보면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포르투갈 57%, 이탈리아 56%, 영국 48%, 프랑스 45%, 스페인 40%로 부정적인 평가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독일만 예외로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39%)가 부정적인 평가(47%)에 못 미쳤다.

즉 스티븐 쿨(Steven Kull) 매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 PIPA) 원장의 지적대로 “본 조사 결과는 중국의 국제 이미지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소프트파워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이는 소위 오바마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공고화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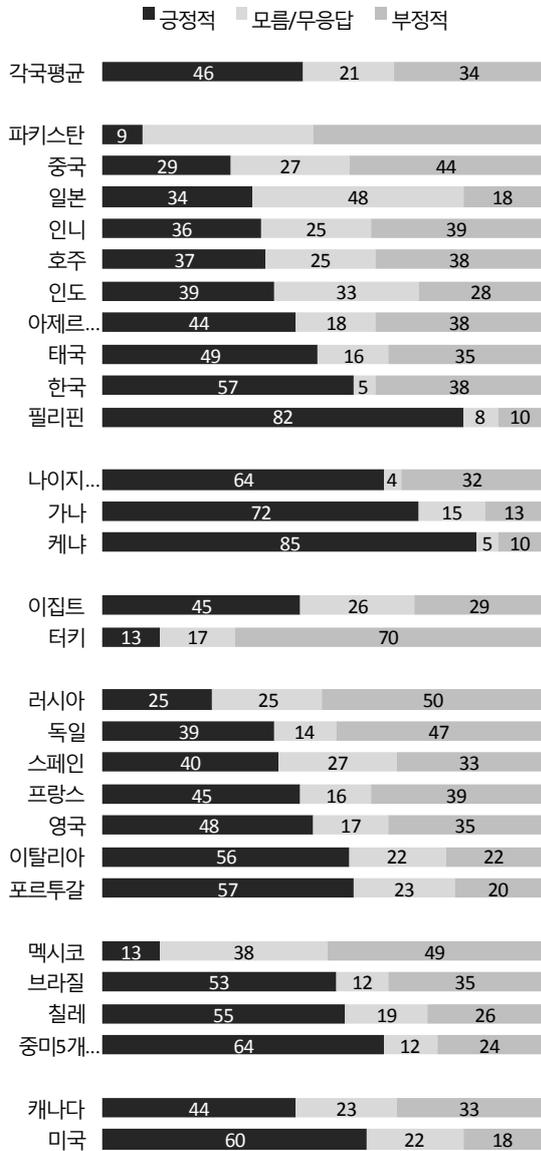
중국, 러시아 및 이슬람 국가에서 강세지만 유럽에서 열세

한편 파키스탄(56%), 인도네시아(43%)와 같은 아시아권 회교 국가나 이집트(64%) 같은 중동 회교국가 등에서 중국의 평판이 미국에 대한 평판보다 앞서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42%) 등에서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면 중국에 대한 유럽 선진국 국민들의 거부감이 중국 소프트파워의 강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개도국 일부 지역에서는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반쪽 파워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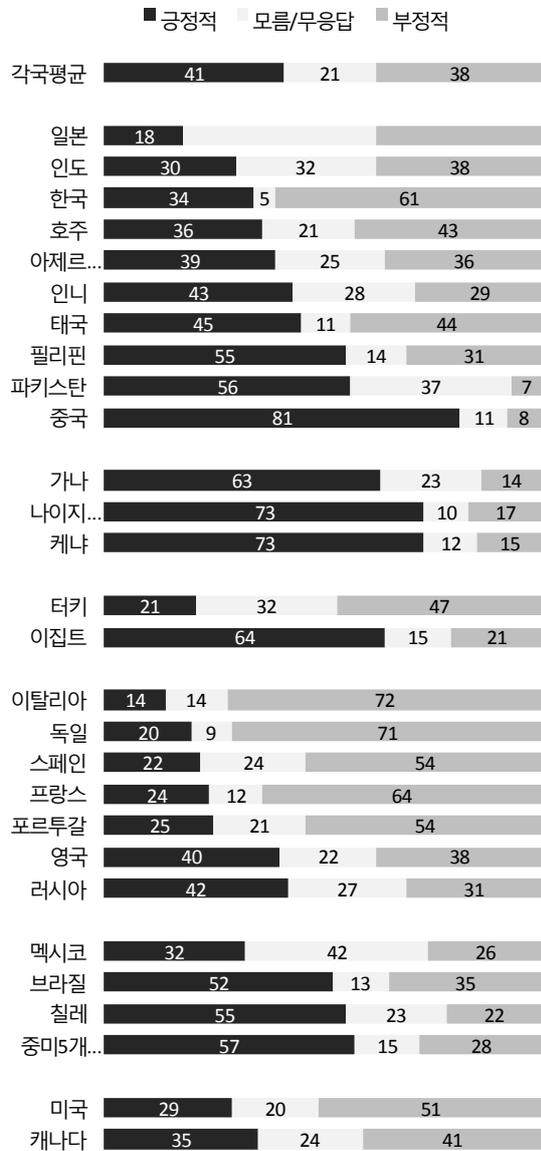
영국에서 40%가 중국에 우호적인 평가를 한 반면 포르투갈(25%), 프랑스(24%), 스페인(22%), 독일(20%), 이탈리아(14%)에서는 30% 대에도 크게 못 미칠 정도로 중국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다. 경제적 선진국이자 정치적으로도 민주체제의 역사가 긴 이들 유럽 국가들에서 중국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나 티벳 인권 침해 사건 등이 중국에 대한 비토여론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1] 미국에 대한 27개국 국제평판(%)



[그림2] 중국에 대한 27개국 국제평판(%)



아프리카, 중남미는 G2 양시론, 호주/독일/멕시코에선 양비론

대다수 서방 국가들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늘고, 중국에 대한 냉담한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독일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긍정평가가 39%, 부정적인 평가는 47%로 부시행정부 당시 악화된 여론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긍정적 평가는 20%, 부정적인 여론은 무려 71%에 달했다. 호주 국민들 역시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37%,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6%로 G2 두 나라 모두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편,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이나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공들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 공히 6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외교의 산물로 보인다.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13%, 중국에 대해서는 32%로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과반수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호주, 독일처럼 두 나라 모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이슬람 공공외교, 중국은 대유럽 인권외교 중시해야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의 경우 중동 및 아시아의 이슬람권을 상대로한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중동 분쟁에서 친이스라엘 정책에서 탈피하고 취임 직후 발표한 것처럼 이슬람 문화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의지를 일관되게 펼치면서 2005년 이래 가장 우호적인 세계여론을 체감하고 있다. 물론 이전 정부 시기 두 차례의 전쟁과 일방주의 외교정책의 여파가 아직 남아 유럽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처지고 있지만 다자협력과 관용의 외교정책을 구사할 경우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속도와 군사력의 강화, 국내 인권탄압의 문제 등으로 특히 서방과 비이슬람 진영의 걱정과 견제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보다 매력적이고 보다 지지받는 리더십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변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고 중국의 인권정책에 대한 서구유럽의 강한 의구심을 완화시킬 보다 전향적인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하드파워 차원에서는 이미 G2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급성장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제성장이 중국 소프트파워의 강화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정치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인권 억압적인 정책들 때문으로 보인다.



4. 한국 소프트파워 현주소와 정책과제

존재감 미흡한 한국, 열 명 중 네 명은 한국의 국제적 역할 “잘 모르겠다”

앞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26개국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보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2%였고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29%로 팽팽하다. 17개 주요국가들 중 긍정적인 답변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위험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낫지만, ‘모르겠다거나 답변을 유보한 응답, 중립적 응답’이 39%나 된다는 것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나라별 여론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외 평판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소프트파워 외교를 구사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아시아지역은 냉온 교차, 유럽은 냉담, 브릭스에선 인지도 낮아

중국 57%, 필리핀 50% 미국 46% “긍정적”, 인도 60%, 일본 55%, 러시아 49% “잘 몰라”
독일 53%, 프랑스 45% “한국 부정적”

우선 아시아권 내에서 조차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많지 않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 57%, 필리핀 50%, 인도네시아 43%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그 뒤로는 일본 36%, 호주 35%, 아제르바이잔 19%, 파키스탄 1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에 대해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에서도 높게 나왔다. 파키스탄(70%), 아제르바이잔(63%), 인도(60%), 일본(55%)가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가까운 아시아 나라들에서조차 국제적 인지도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한국의 국제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매우 인색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30%, 영국 29%, 러시아/독일 28%, 포르투갈/이탈리아 각 23%, 스페인 22%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평가는 독일에서 53%,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각각 46%였고, 프랑스에서 45%로 높게 나타났다. 영국(33%), 포르투갈(27%), 러시아(23%)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낮은 대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포르투갈과 러시아에서는 각각 50%, 49%가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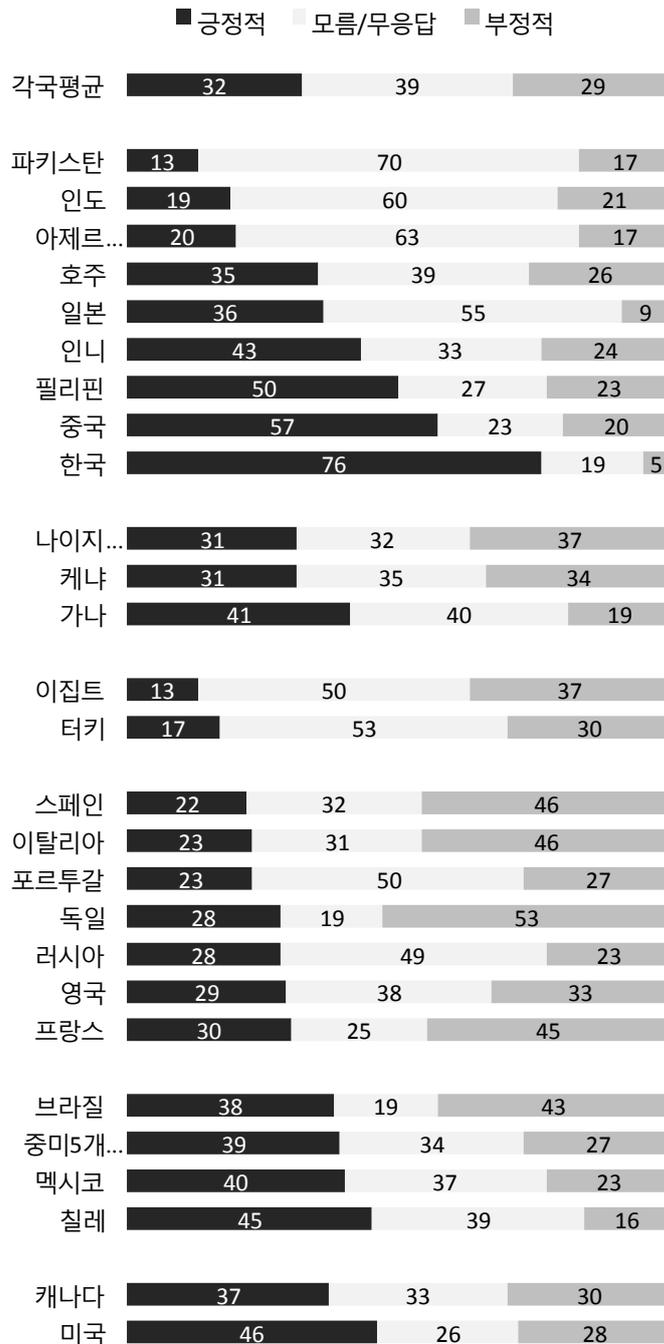
상대적으로 미주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한국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46%, 부정적인 평가는 28%, 모름/답변유보가 26%였다. 전체 평균 32%에 비해서는 우호적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을 특별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던 한미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만족할만한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캐나다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7%, 부정적인 응답이 30%였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33%였다.

한편 중남미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다. 특히 한국 최초의 FTA를 맺은 칠레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45%, 부정적인 여론은 16%에 그쳤고, 멕시코나 중남미 5개국에서도 긍정



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보다 많았다. 다만 브라질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38%)보다 부정적인 여론(43%)이 많았다. 이후 FTA가 상대국 국가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브라질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3] 한국에 대한 26개국 국제 평판(%)



갈길 먼 한국 소프트외교, 장기비전과 전략 수립이 우선

자국 정부의 경우에도 국내정책에 비해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변화는 둔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대외정책 분야의 경우 전문적 정보와 고도의 국가적 책임윤리가 보다 강조되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의 효과가 인식되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간과 전략적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보접근과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이슈(hard issue) 영역에 해당한다(Pollock et al. 1993).

이번 조사의 시점이 2009년 11월 말부터 2010년 2월 중순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의 한국정부의 외교적 성과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 나라의 평판이 올림픽과 같은 중대사건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변화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결과는 한국 소프트파워 외교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정권의 교체에도 일관된 소프트파워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전략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기 보다는 약소국 혹은 개도국 지위를 활용하여 국제적 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국제사회에 저야 할 부담과 책임이 적은 대신 국제무대 및 세계인들 사이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기회는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데 있다.

둘째, 그 동안 한미동맹이나 대중국외교의 틀 안에 지나치게 제한되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U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2009년에는 한-EU FTA 체결서명이 이루어질 정도로 경제협력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 관계에서 한국-유럽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치, 외교,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유럽 국민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핵심 기둥 역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한국외교의 기본 축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다양한 차원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무대에서 복합적인 연결망을 만들어가는 변환하는 시대에 우리의 외교관계 역시 보다 복합적 연결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면 우리의 운신의 폭이 G2외교로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하영선 2006).

셋째, 아시아에 대한 재발견과 이에 기초한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의 필요성이다.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아시아가 미래 세계질서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필리



핀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서조차 한국의 국제적 존재감이 미약하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았다. 한국이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 관계증진과 대민 공공외교의 우선순위를 너무 뒤로 미뤄놓지 않았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다 ■.

[참고문헌]

- 김상배. 2005. “매력국가론 서설”,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파워의 미래전략』,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
- 하영선(편). 2006. 『21세기 한국외교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 Jr. 2007.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CSIS press.
- Nye, Joseph S. Jr.,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Y: Public Affairs.
- Lee, Sook-Jong. 2009. "South Korea's Soft Power Diplomacy" EAI Issue Briefing No.MASI 2009-01.
- Pollock, Philip H., Stuart A. Lilie, and M. Elliot Vites. 1993. "Hard Issues, Core Values and Vertical Constraint: The Case of Nuclear Powe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1). 29-50.
- Whitney, Christopher B. and David Shambaugh. 2009. *Soft Power in Asia: Results of a 2008 Multinational Survey of Public Opinion*.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이 보고서는 EAI 여론분석센터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조사개요

조사기획	BBC · 글로브스캔 · 매일경제 · 동아시아연구원	
프로젝트	Global Poll 2010 28개국 국제여론조사	
취지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장으로 국제무대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힘'들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세계여론'이다. 해외 파병과 통상 협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느 국가도 국익실현과정에서 세계여론을 무시하고 정책결정을 하기 힘든 시대가 온 것이다.	
	EAI 여론분석센터는 매일경제의 후원으로 2005년부터 영국 BBC월드서비스가 주관하고 국제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GlobeScan) 및 미국 매릴랜드대학의 국제공공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총괄 기획하는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참여 28개국	북미	미국, 캐나다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중미지역 5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나마), 칠레
	유라시아	독일,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아프리카/중동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터키
	아시아/태평양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호주

한국 조사개요

조사일시	1월 11~12일
표본구성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
표집방법	할당표집 (가중치 부여)
표집오차	95%신뢰수준 ±3.1%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연구디자인	EAI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세계현안조사 연구팀

[연구책임]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EAI 여론분석센터

[연구진]

이숙중 성균관대 행정학과
EAI 원장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EAI ASI센터

서상민 EAI 중국연구센터

이근수 EAI 거버넌스센터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정원철 EAI 여론분석센터

www.eai.or.kr

www.hrc.co.kr



조사 방법론

Global Poll 국제조사 시리즈

Global Poll 국제조사 시리즈는 2005년부터 세계 질서에 영향력이 큰 파워국가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세계인의 평판을 물어보고 있다. 2010년 조사에는 17개 파워국가들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 경제위기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G20 국가 중 브릭스(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4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 11월 19일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며 정치적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유럽연합(EU)과 함께 한국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4개 위험국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을 제외한 16개 나라는 2009년 이전 조사에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 나라들이다. 한국은 EAI(동아시아연구원)와 매일경제의 요청으로 2010년 조사에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국 평판 조사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27개국 중 태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 26개국이 한국 평판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기관 및 조사디자인

Global Poll 국제조사 시리즈는 ISO 9001 인준을 받은 국제여론조사컨설팅기관인 글로브스캔(Globscan)이 전체조사를 주관하고, 매일경제와 EAI가 한국을 대표하여 2005년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2월 16일까지 국제표준절차에 따라 대면면접법 또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각국 조사는 브라질(507명)과 스페인(809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인구비례에 맞게 할당된 1000명 이상(1,000명~2,162명)의 대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해야 할 국가 수가 많아 전체 표본을 역시 전국인구구성에 비례하는 두 개의 응답 집단으로 분할하여 각 한 집단(A표본집단)에서는 8개국(미국, 북한, 이스라엘,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EU), 다른 하위 표본집단(B표본집단)에서는 9개국(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독일, 영국, 이란, 인도, 한국, 호주)에 대한 평판조사를 나누어 진행했다.

질문지 [Question Wording]

M1A

Please tell me if you think each of the following countries are having a mainly positive or mainly negative influence in the world:

- 01 Mainly positive
- 02 Mainly negative
- VOLUNTEERED (DO NOT READ)
- 03 Depends
- 04 Neither, neutral
- 99 DK/NA

- at. China
- bt. France
- ct. The United States



- dt. The European Union
- et. Japan
- ft. Israel
- gt. North Korea
- ht. Canada

M1B

- at. The United Kingdom
- bt. Russia
- ct. India
- dt. Iran
- et. Brazil
- ft. Pakistan
- gt. Germany
- ht. South Africa
- it. South Korea

[한국 질문지]

M1At. 다음 각각의 국가가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대체로 긍정적인지 혹은 대체로 부정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읽지 마시오)	반반이다 중립이다 (읽지 마시오)	모름/무응답 (읽지 마시오)
at) 중국	1	2	3	4	99
bt) 프랑스	1	2	3	4	99
ct) 미국	1	2	3	4	99
dt) 유럽연합	1	2	3	4	99
et) 일본	1	2	3	4	99
ft) 이스라엘	1	2	3	4	99
gt) 북한	1	2	3	4	99
ht) 캐나다	1	2	3	4	99

M1Bt. 다음 각각의 국가가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대체로 긍정적인지 혹은 대체로 부정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읽지 마시오)	반반이다 중립이다 (읽지 마시오)	모름/무응답 (읽지 마시오)
at) 영국	1	2	3	4	99
bt) 러시아	1	2	3	4	99
ct) 인도	1	2	3	4	99
dt) 이란	1	2	3	4	99
et) 브라질	1	2	3	4	99
ft) 파키스탄	1	2	3	4	99
gt) 독일	1	2	3	4	99
ht) 남아공화국	1	2	3	4	99
i) 한국	1	2	3	4	99



표집방법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중미5개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멕시코, 필리핀, 태국, 터키 등 산간오지와 도서지역의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도시지역 조사로 진행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미 5개국은 각각의 국가별로 코스타리카 223명, 과테말라 207명, 온두라스 205명, 니카라과 201명, 파나마 232명 씩 뽑아 전체 1068명의 표본집단을 구성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2.1\% \sim 6.9\%$ 이다.

국가	샘플수 (비가중치)	조사일시	대상	조사방법	표집방법
Australia 호주	1,034	12. 22, 2009 - 1. 26, 2010	18+	전화면접	전국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1,000	1. 29 - 2. 16, 2010	15+	대면면접	도시1
Brazil 브라질	507	1. 25, 2010 - 2. 7, 2010	18+	대면면접	도시2
Canada 캐나다	1,022	12. 15, 2009 - 1. 15, 2010	18+	전화면접	전국
Chile 칠레	1,200	12. 26, 2009 - 1. 7, 2010	18+	대면면접	도시3
China 중국	1,000	12. 17-30, 2009	18+	전화면접	도시4
Costa Rica 코스타리카	223	12. 18-20, 2009	18+	대면면접	도시5
Egypt 이집트	1,015	12. 20-31, 2009	18+	대면면접	도시6
El Salvador 엘살바도르	200	12. 12, 2009 - 1. 3, 2010	18+	대면면접	도시7
France 프랑스	1,004	12. 8-14, 2009	15+	전화면접	전국
Germany 독일	1,006	12. 15, 2009 - 1. 4, 2010	16+	전화면접	전국
Ghana 가나	1,000	12. 19-31, 2009	18+	대면면접	전국
Guatemala 과테말라	207	12. 19-23, 2009	18+	대면면접	도시8
Honduras 온두라스	205	12. 17-22, 2009	18+	대면면접	도시9
India 인도	1,076	12. 20, 2009 - 1. 9, 2010	18+	대면면접	전국
Indonesia 인도네시아	1,000	12. 10-27, 2009	18+	대면면접	전국
Italy 이탈리아	1,004	2. 10-16, 2010	18+	전화면접	전국
Japan 일본	1,788	1. 16-17, 2010	20+	대면면접	전국
Kenya 케냐	1,000	12. 7-14, 2009	18+	대면면접	전국
Mexico 멕시코	1,000	12. 2-12, 2009	18+	전화면접	도시10
Nicaragua 니카라과	201	12. 31, 2009 - 1. 4, 2010	18+	대면면접	도시11
Nigeria 나이지리아	1,000	12. 27, 2009 - 1. 14, 2010	18+	대면면접	전국
Pakistan 파키스탄	2,162	12. 27, 2009 - 1. 10, 2010	18+	대면면접	전국
Panama 파나마	232	12. 13-15, 2009	18+	대면면접	도시12
Philippines 필리핀	1,000	12. 8, 2009 - 1. 9, 2010	18+	대면면접	도시13
Portugal 포르투갈	1,006	1. 10-26, 2010	18+	전화면접	전국
Russia 러시아	1,027	12. 12-21, 2009	18+	대면면접	전국
South Korea	1,002	1. 11-12, 2010	19+	전화면접	전국



한국					
Spain	801	1. 19-25, 2010	18+	전화면접	전국
스페인					
Thailand	1,000	1. 6-27, 2010	18+	전화면접	도시14
태국					
Turkey	1,000	12. 4-27, 2009	15+	대면면접	도시15
터키					
United Kingdom	1,020	12. 8, 2009 - 1. 15, 2010	18+	전화면접	전국
영국					
USA	1,035	11. 30 - 12. 29, 2009	18+	전화면접	전국
미국					

- 아제르바이잔 조사는 전국 성인 인구의 24%를 대표하는 Baku, Ganja, Mingachevir, Quba, Shamakhy, Sheki, Shirvan, Sumqayit 지역에서 실시했다.
- 브라질 조사는 전국 성인인구의 16%를 대표하는 Belo Horizonte, Brasilia, Curitiba, Florianopolis, Goiania, Porto Alegre, Recife, Rio de Janeiro, Salvador, and Sao Paulo에서 실시했다.
- 칠레 조사는 전국 성인인구의 63%를 대표하는 80개 시(cities/towns) 지역에서 실시했다. 이 도시들은 Aisen del General Carlos Ibanez del Campo, Antofagasta, Araucania, Arica y Parinacota, Atacama, Bi obio, Coquimbo, Liberatador General Bernardo O'Higgins, Los Lagos, Los Rios, Magallanes y la Antarica Chilena, Maule, Metropolitan, Tarapaca, Valparaiso다.
- 중국 조사는 중국 전국 성인 인구의 45%를 대표하는 Beijing, Beiliu, Chengdu, Dujiangyan, Feyang, Fuyang, Guangzhou, Hangzhou, Manzhouli, Quanzhou, Qujing, Shanghai, Shenyang, Shuangcheng, Wuhan, Xi'an, Xining, Zhengzhou에서 실시했다.
- 코스타리카 조사는 전국 성인인구의 13%를 대표하는 Alajuela, Cartago, Heredia, Liberia, Limón, Puntarenas, and San José 지역에서 실시했다.
- 이집트 조사는 전국 성인인구의 22%를 대표하는 Alexandria, Cairo, Giza, Shoubra al-Khaima 지역에서 실시했다.
- 엘살바도르 조사는 전국 성인인구의 15%를 대표하는 Cojutepeque, Colon, San Miguel, San Salvador, Santa Ana, sonsonate, UUsulután, Zacatecoluca 지역에서 실시했다.
- 과테말라 조사는 전국 성인인구의 14%를 대표하는 Chimaltengango, Chiquimula, Coban, Escuintlay, Guatemala City, Huehuetengango, Jutiapa, Mazatenango, Pureto Barrios, Quetzaltenango, San marcos 지역에서 실시했다.
- 온두라스 조사는 전국 성인인구의 33%를 대표하는 Comayagua, Danli, El Progreso, La Ceiba, San Pedro Sula, Santa Barbara, Tegucigalpa 지역에서 실시했다.
- 멕시코 조사는 전체인구의 40%, 거주지역 통신회선(residential land line)의 80%를 대표하는 16개 대도시와 매체 시장 지역(media market region)에서 실시했다.
- 니카라과 조사는 전국 성인인구의 23%를 대표하는 León, Managua, Masaya, and Matagalpa 지역에서 실시했다.
- 파나마 조사는 전체 도시인구의 22%를 대표하는 Aguadulce, Almirante, Boquete, Bugaba, Changuinola, Chitré, Colón, David, Las Tablas, Nata, Panama, and Santiago 지역에서 실시했다.
- 필리핀 조사는 전국 도시성인 인구의 27%를 대표하는 국가 수도 지역(National Capital Region)에서만 실시했다.
- 태국 조사는 전체 도시인구의 13%를 대표하는 Bangkok, Chiang Mai, Chon Buri, Khon Kaen, Lampang, Nakhon Pathom, Nakhom Ratchasima, Nakhon Si Thammarat, Nonthaburi, Pathum Thani, Rayong, Samut Prakan, and Songkhla 지역에서 실시했다.
- 터키 조사는 전국 성인인구의 34%를 대표하는 Adana, Ankara, Antalya, Bursa, Diyarbakir, Erzurum, Istanbul, Izmir, Konya, Samsun, and Zonguldak에서 실시하였다.



각국 협력 연구기관(GlobeScan's Research Partners)

국가	연구기관	위치	담당
Australia 호주	GlobeScan	Toronto	Oliver Martin oliver.martin@globescan.com +1 416 969 3073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SIAR Research and Consulting	Baku	Ashraf Hajiyev ashraf.hajiyev@siar.az +994 12 4472934 / 994 12 4482934
Brazil 브라질	Market Analysis	Florianopolis	Fabián Echegaray fabian@marketanalysis.com.br +55 48 3234 8573
Canada 캐나다	GlobeScan	Toronto	Oliver Martin oliver.martin@globescan.com +1 416 969 3073
Central America 중미 5개국	Dichter &Neira	Panama City	Maria Altamar maltamar@dichter-neira.com +507 236 4000
Chile 칠레	Mori Chile	Santiago	Marta Lagos mori4@morichile.cl mlagos@morichile.cl +56 2 334 4544
China 중국	GlobeScan	Toronto	Oliver Martin oliver.martin@globescan.com +1 416 969 3073
Egypt 이집트	Attitude Research	Cairo	Mohamed Al Gendy mgendy@attitude-eg.com +20 2 2271 1262
France 프랑스	Effience 3	Paris and Rheims	Christian de Thieulloy christian.t@effience3.com +33 1 4316 5442
Germany 독일	Ri*QUESTA GmbH	Teningen	Bernhard Rieder riquesta.rieder@t-online.de +49 7641 93 43 36
Ghana 가나	Business Interactive Consulting BIG	Accra	Razaaque Animashaun info@bigghana.com +233 21 783140 / 233 21 782892
India 인도	Team CVoter	Noida	Yashwant Deshmukh yashwant@teamcvoter.com +91 11 65791638 / 91 12 04247135
Indonesia 인도네시아	DEKA Marketing Research	Jakarta	Irma Malibari irma.malibari@deka-research.co.id +62 21 723 6901
Italy 이탈리아	GfK Eurisko s.r.l.	Milan	Paolo Anselmi paolo.anselmi@eurisko.it +39 02 4380 91
Japan 일본	The Yomiuri Shimbun	Tokyo	Ikuko Higuchi higu1084@yomiuri.com +81 3 3217 1963
Kenya 케냐	Research Path Associates Limited	Nairobi	Jeremy Mwololo jeremy.mwololo@rpa.co.ke +254 20 2734770
Mexico 멕시코	The Mund Group	Mexico City	Daniel M. Lund dlund@mundgroup.com +52 55 5584 3020/2470
Nigeria 나이지리아	Market Trends Research International	Lagos	Michael Umogun m.umogun@research-intng.com +234 1 791 7987
Pakistan 파키스탄	Gallup Pakistan	Islamabad	Ijaz Shafi Gilani isb@gallup.com.pk +92 51 2655630



Philippines 필리핀	M&S-Sigma Dos Philippines, Inc.	Makati City	Teodora Marasigan tmmarasigan@ms-sigmados.com +63 2 8172780
Portugal 포르투갈	Sperantia	Queijas	Sandrine Lage slage@sperantia.pt +351 214 177 418
Russia 러시아	CESSI Institute for Comparative Social Research	Moscow	Vladimir Andreenkov vladimir.andreenkov@cessi.ru +7 495 650 55 18
South Korea 한국	East Asia Institute MBN	Seoul	Han-wool Jeong hwjeong@eai.or.kr +82 2 2277 1683
Spain 스페인	Sigma Dos Int.	Madrid	Gines Garrido petrana@sigmados.com +34 91 360 0474
Thailand 태국	Custom Asia Co., Ltd.	Bangkok	Sukit Tanskul sukit@c-asia.com +66 2 649 9799
Turkey 터키	Yontem Research &Consultancy	Istanbul	Bülent Gündoğmuş mehmet.aktulga@yontemresearch.com +90 212 278 1219
United Kingdom 영국	GlobeScan	London	Sam Mountford sam.mountford@globescan.com +44 20 7253 1447
USA 미국	GlobeScan	Toronto	Oliver Martin oliver.martin@globescan.com +1 416 969 3073



주관기관 및 문의

Steven Kull, Director
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Washington
+1 202 232 7500
(Mobile: +1 301 254 7500)

Sam Mountford, Research Director
GlobeScan Incorporated, London
+44 20 7253 1447
(Mobile: +44 7854 132625)

Oliver Martin, Director, Global Development
GlobeScan Incorporated, Toronto
+1 416 969 3073
(Mobile: +1 416 721 3544)

GlobeScan Incorporated is an international opinion research consultancy. We provide global organisations with evidence-based insight to help them set strategy and shape their communications. Companies, multilateral institutions, governments and NGOs trust GlobeScan for our unique expertise across reputation management, sustainability and stakeholder relations. GlobeScan conducts research in over 90 countries, is ISO 9001-2008 certified and a signatory to the UN Global Compact.

Established in 1987, GlobeScan is an independent, management-owned company with offices in Toronto, London and San Francisco.

The 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PIPA)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undertakes research on attitudes in publics around the world on a variety of international issues and manages the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 WorldPublicOpinion.org.

BBC World Service is an international multimedia broadcaster delivering international, national and regional services in 32 languages. It uses multiple platforms to reach its weekly audience of 188 million globally, including shortwave, AM, FM, digital satellite, and cable channels. It has around 2,000 partner radio stations which take BBC content, and numerous partnerships supplying content to mobile phones and other wireless handheld devices. Its news sites include audio and video content and offer opportunities to join the global debate. For more information, visit <http://bbcworldservice.com/> To find out more about the BBC's English language offerings and subscribe to a free e-newsletter, visit <http://bbcworldservice.com/schedules/> .

